

저온·강풍에 작과불량... 나주·영암 배 농가 '울상'

4월 영하권 날씨... 과수원 30~40% 냉해입어

재해보험 '냉해특약' 가입농가는 20%도 안돼

나주와 영암 등 배 주산지에서 최근 저온에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작과 불량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날씨가 계속될 경우 배뿐 아니라 과수농가 전반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15일 나주지역 농협과 농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과 11일 이 지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가 몰아쳤다. 영산포농협 관계자는 "4월 날씨답지 않게 새벽 기온이 영하 2~3도가

지 내려갔다"며 "암술 씨방이 얼어 까맣게 변한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배꽃이 냉해를 입게 되면 암술 씨방이 얼어 수정이 힘든 데다 열매를 맺어도 발육이 부진하거나 기형이 되기 쉽다.

꽃봉오리가 맺는 시기인 3월 중순이나 4월 초를 전후해 냉해를 입으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만 꽃이 핀 다음에는 치명적이다.

특히 대부분 배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특약조건인 냉해에 가입한 농가는 20%가 채 안 되

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훈 영산포농협 지도상무는 "나주와 영암지역 과수원 30~40%가 작과 불량 등 냉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씨방이 살아있는 꽃을 중심으로 인공수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영암지역은 전국 배 재배면적의 20%가량인 3100ha를 재배, 연간 8만5000여t을 생산하고 있으며 13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기자 노트

표류하는 '여수호', 자성이 필요하다

여수의 봄은 수많은 관광객들의 화사한 옷차림에서 시작되고 있다. 주말마다 10만명을 넘나드는 외지인들이 도시 곳곳을 메우고 있다. 전국 3대 진달래군락지로 유명한 영취산에는 700대가 넘는 관광버스가 진풍경을 만들어내고 오동도와 향일암, 금오도 비렁길 등 주요 관광지 주변 호텔과 식당은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캐제를 불렀다.

호기를 맞을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모두 미래보다는 과거를 바라보며 상호 비난하면서 '여수호'가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창화 동부취재본부 기자

15년 동안이나 공들인 세계박람회장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으나 지역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남해안 관광 선벨트 중심도시'는 이제 아무

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묻혀버렸다. 15년 동안이나 공들인 세계박람회장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으나 지역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남해안 관광 선벨트 중심도시'는 이제 아무

일부 관광객들은 방을 구하지 못해 순천에서 자기도 했고, 식당은 음식재료가 동이 나 일찍 문을 닫는 진풍경도 벌어졌다고 한다.

이제는 지난해 열린 여수세계박람회가 여수라는 곳이 한 번 가볼 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박람회 덕분에 KTX 운행, 이순신대교 개통 등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특급호텔을 포함, 고급숙박업소가 들어서는 등 관광 인프라도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물론이다.

이제는 지난해 열린 여수세계박람회가 여수라는 곳이 한 번 가볼 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박람회 덕분에 KTX 운행, 이순신대교 개통 등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특급호텔을 포함, 고급숙박업소가 들어서는 등 관광 인프라도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물론이다.

오는 20일 순천만정원박람회 개최에 맞춰 박람회장 내 스카이다워, 디지털갤러리 등 임시 시설도 함께 재개장될 경우 지역발전의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제는 지난해 열린 여수세계박람회가 여수라는 곳이 한 번 가볼 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박람회 덕분에 KTX 운행, 이순신대교 개통 등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특급호텔을 포함, 고급숙박업소가 들어서는 등 관광 인프라도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물론이다.

돈 되는 '숲 가꾸기' 눈길

보성군, 매실 등 소득가치 높은 수종 권장

숙아내기·가지치기 등 '맞춤 컨설팅' 시행

보성군이 최근 관내 산림을 소유하거나 임대해 경영하는 귀농농가에게 현장 맞춤형 숲 가꾸기 전문컨설팅을 시행해 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산주가 희망하는 산림에 대해 합동으로 정확한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산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연차적으로 숲을 소득자원으로 가꾸는데 맞춤형 숲 가꾸기 전문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특히 가치가 있는 수종의 임지는 입목의 생장속도를 빠르게 하고 고이가 없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숙아베기와 가지치기를 실행하며, 임상이 좋지 않은 임지는 적정한 숙아베기와 잠관목을 제거하고 있다.

이후 산림 소득의 가치가 높은 황칠나무, 매실, 대봉, 고사리, 취나물, 호두나무, 은나무, 율나무 등 산림 소득 작목을 인식하는 사업을 권장해 산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산림에 임도 및 작업로가 없는 곳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로와 산책로를 개설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숲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돈이 될 수 있는 임지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여수시민사회단체 대표 기자회견 15일 오전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시민사회단체대표 40여명이 지역발전을 위한 화합과 상생을 촉구하는 대신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효과'

1분기 순천 관광객 80만명... 전년비 9% 증가

순천시는 15일 "2013년 1/4분기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수가 80만20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순천만,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송광사, 선암사 등을 각각 합해 산출한 것이다.

순천 관광지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곳은 '세계5대 연안습지 순천만'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2% 증가한 38만7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낙안읍성(13만7000명), 드라마촬영장(7만4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이 같은 관광객 증가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적

극적인 관광지 홍보, 관광객의 생태 관광에 대한 선호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원박람회장과 주요 관광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하면서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전개하고,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여수~순천정원박람회

20일부터 셔틀버스 운행

여수시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20일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시는 오동도를 출발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오전 8시 첫차를 시작으로 1시간 10분 간격으로 하루 10회 운행하며, 6개월간 운영한다.

버스는 오동도~이순신광장~여수동부영6차 앞~시청~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노선으로 운영되며, 시는 오동도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 셔틀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요금은 편도기준 성인 3000원, 중고생 20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구례 예술인마을 '화합 한마당'

개촌 1주년 맞아

구례 예술인마을이 지난 13일 새로 운 터전에서 삶을 일구는 개촌 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기동 구례군수를 비롯해 관내 기관단체장, 지역주민 70여명이 참석, 마을 개촌 1주년을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사진)

구례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 중 하나로 추진돼 온 예술인마을은 서양화가, 동양화가, 조각가 등 30여 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하며 마을이 됐다.

예술인마을에는 현재 25가구가 예술작품 활동을 위한 작업실과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8가구 모두 완공될 예정이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광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